

김승수 시장, 전주역사 신축 총력전

국회서 예결위원들에게 전주역사 전면개선 등 국비 지원 요청... 시, 20~22일까지 예산 확보 '집중'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승수 시장과 박순중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기간으로 정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을 위한 예결소 위임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위원과 전주지역 국회의원, 전북지역을 연고로 둔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은 22일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정운천 의원, 안호영 의원, 조배숙 의원, 소병훈 의원, 김중희 의원, 강병원 의원, 이학영 의원 등 국회 예결위원들을 만나 국가예산 증액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전주역사 전면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역점사업이 예결위심사 단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예결위 심사에 상정된 전주시 국비사업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김 시장은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올 연말 완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지원액을 당초 시 요구안대로 40억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전주역사 전면개선 예산은 정동영(전주 병) 의원의 지원을 받아 국비 30억원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전주역은 지난해 267만4,517명이 이용하고, 올해 10월까지 228만4,563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역사가 지어진 지 35년이 경과해



한국가축사양표준 개정판 발간

오영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축산 호르몬을 반영한 '한국가축사양표준' 3차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차장과 대합실 등 제반시설이 노후·협소하고 편의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면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현재 상임소위까지 반영된 △전북 증소기업 연수원 건립(14억)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48억) △국도1호선 진입교량(삼례교) 보수·보강(75억) △NPS 복지포럼센터 건립(5억)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신축(1.5억) 등의 국가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교문위 소관사업인 세계무형유산포럼 개최(6억), 환노위 소관사업인 전북지역 장애인 능력개발 인프라 구축(80억)과 전주 동물원 멸종위기종 보전환경조성사업(72억)이 예결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내년도 국가예산 배정을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별 소위원회가 마무리되고 현재 삭감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시는 기 확보된 국가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정책질의서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시는 또, 다음주부터 진행될 예정인 증액심사에 대비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5,000억원대 예산 확보를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전주에 첫 발을 내딛는 전주역은 전국에 있는 KTX역사 중 가장 오래됐지만,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역이다. 전주역 첫인상을 결정짓는 대표 관문이자 호남의 관문

인 전주역을 전주의 품격있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신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라며 "전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다른 현안사업들도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가예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만 관광객 시대를 연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사의 신축은 당연히 선상역사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내년도 설계용역에 필요한 30억원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최첨단 4차 산업도시 구축을 위해 드론메카시터 인프라구축, 4D실감형 기술연구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28~30일 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 당첨자 계약기간에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통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뺏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뺏다방' 식 청약이 일삼는 투기가 상당하고, 이를 부

추기는 '뺏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도 만연해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 계약 시기인 28일부터 3일간 시와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1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뺏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보건소,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음주의 폐해와 예방법을 알리는데 앞장서온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다.

전주시보건소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에서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주시보건소는 전 생애주기에 맞는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펼쳐온 점이 평가받았다.

대표적으로, 보건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음주예방교육 및 음주극제 등의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전

개하고, 30대~50대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는 알터 중심의 보건교육을 통해 일주일에 2회 이상, 회당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 마시는 고위험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보건소는 운동·영양·구강·금연·심뇌혈관 교육을 통합적으로 시행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과 시민의 인식개선으로 전주시 고위험음주율은 지난 2011년 20.1%에서 지난해 16.4%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는 전폭평균(17.6%)과 전국평균(19.2%)보다 양호한 수치다. /김민근 기자

장기 상습 보험사기 60대 경찰에 덜미

장기간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상습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6월 초까지 서행하는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치는 수법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638여만원을 갇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6월 중순부터 2017년 7월까지 자신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자동

차 옆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방식으로 12회에 걸쳐 1,848여만원을 갇혔다.

조사결과 A씨는 1990년 무렵부터 시내버스가 급출발급정거 하는 점을 노려 다녔다고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손목치기수법으로 보험금을 갇긴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다른 여죄가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다른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성민 기자

김제 식용 귀뚜라미 농장 화재 1명 화상

22일 오전 3시55분께 김제시 월성동의 한 식용용 귀뚜라미 농장에서 화재 발생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해 농장 안 330㎡를 태우고 식용으로 사육되던 귀뚜라미가 죽어 소방서 추산 4,7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농장 직원 A(49)씨가 양쪽 손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성민 기자

덕진 방순대원 30명 사랑의 헌혈

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는 지난 21일 혈액수급안정화를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방범순찰대 지휘요원과 대원 30여명이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헌혈은 전북지역에 응급사고 등 수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 부족현상 해소 및 헌혈을 통해 대원들에게 희생정신 등 배려하는 삶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진행됐다.

김중화 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전주시, 수능 시험장 주변 교통대책 추진

오전 6시~8시 10분까지... 200m 앞 차량 출입 통제 · 반경 2km 안 간선도로 관리

전주시가 오는 23일 치러지는 대학 수능능력시험일 오전 6시부터 입실 완료 시간인 8시 10분까지 전주지역 22개 시험장 주변 특별 교통대책에 나선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차량운행 급증으로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이 예상돼 각 시험장별 교통지도도를 강화하고 수험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

해서다.

시험장 주변에 교통지도 인력을 편성해 시험장 200m 앞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시험장 반경 2km 안 주 오 간선도로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 유사시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할 차량 12대를 배치한다.

전주시는 수능 당일 오전 개인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전주시역 개인택시는 2,339대로 개인택시 조합 협조를 얻어 수능 당일 휴무하는 881대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해제하기로 했다.

이어 수능일 버스 결행이나 지연운행이 없도록 전주시내버스공통관리위원회와 5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